

‘뱀파이어 키스’ 세계를 홀리다



‘피겨여왕’ 김연아 화려한 복귀

‘피겨 여왕’ 김연아가 8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도르트문트의 아이스스포츠센터(Eissportzentrum)에서 열린 NRW로피 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영화 ‘뱀파이어의 키스’의 주제곡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김연아는 기술점수(TES) 37.42점과 예술점수(PCS) 34.85점을 받아 72.27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최나연 연장에서 짜릿한 버디

KLPGA 개막전 우승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최나연(25·SK텔레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3 시즌 개막전인 스윙잉 스카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시즌 첫 승리를 올렸다. 최나연은 9일 대만 타이베이 미라마르골프장(파72·6303야드)에서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를 적어낸 최나연은 테레사 루(대만)와 연장에 돌입해 두번째 홀에서 테레사 루가 파를 잡은 사이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최나연은 올해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과 타이틀 홀더스에서 우승, 2승을 챙긴 데 이어 KLPGA 투어에서도 1년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최나연은 작년 9월 KLPGA 투어 한화금융클래식에서 우승했다. 이날 짧은 거리의 퍼트를 놓치는 아쉬운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한 최나연은 14번홀(파3)까지 버디와 보기를 각각 3개씩 기록하며 타수를 유지해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15번홀(파4)의 파 퍼트 때 공이 같은 조 박희영(25·하나금융그룹)의 볼마크에 맞으면서 홀 바로 앞에서 멈춰, 같은 조 신지애(24·미래에셋)에게 공동 선두 자리를 허용했다. 바로 다음에 친 신지애가 가까운 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면서 아슬아슬하게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은 최나연은 한타 차로 뒤지던 테레사 루(대만)가 18번홀(파5)에서 1~2m거리의 버디 퍼트에 성공하면서 다시 공동 선두 자리를 내줬다. 결국 18번홀에서 연장전에 돌입한 최나연은 연장 두번째 홀에서 티샷과 두번째 샷을 러프로 보냈으나, 세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렸다. 최나연은 테레사 루가 파를 잡은 사이 1~2m거리의 버디 퍼트에 성공해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올해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자인 신지애는 정혜진(25·우리투자증권)·양수진(21·뱅크)·유소연(22·한화)·시모무라 마유미(일본)·아사하라 무노스(스페인)와 함께 1언더파 215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KLPGA 2관왕 김하늘(24·비씨카드)·‘만인니’ 박세리(35·KDB금융그룹)는 이븐파 216타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최나연이 타이베이 미라마르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3 시즌 개막전인 스윙잉 스카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 2라운드 9번홀에서 티샷 후 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역사를 만든 타이거즈 OB들이 지난 7일 승년 모임을 갖고 모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왕년의 호랑이들 다 모였네

타이거즈 OB들 한자리에

야구박물관 적극 참여키로

한국 프로야구를 움직인 타이거즈 OB들이 연례 모임을 위해 지난 7일 서구 치평동 음식점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봉연 회장과 송유석 총무를 중심으로 “처음 나온 자리라서 떨린다”는 막내 홍세완 KIA 코치까지 타이거즈의 선·후배들이 총출동했다. 이순철 수석코치를 필두로 10명의 KIA 코치진과 새출발을 한 이대진 한화 투수 코치, 넥센 이강철 수석코치 등 프로 지도자들과 동성고 새사령탑으로 부임한 김제덕 감독을 비롯해 김준환(원광대), 이광우(화성고), 서창기(순천효천고)감독 등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아마 지도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사업가로 변신한 이상운 영암마트 대표와 최해식 최고투 대표 그리고 타이거즈 역사

를 함께 한 최윤범 전 단장까지 40명의 호랑이들은 모처럼 반가운 얼굴을 맞대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김봉연 회장은 “KIA와 한화에 회원들의 분포가 높아졌다. 내년엔 두 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고 웃으며 “팀사정과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하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참여율이 높다. 1년에 한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타이거즈 OB는 말 그대로 한국야구를 움직였고 또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다. 김을을 한화 감독을 시작으로 선동열·김성환·양승호·한대화·이순철·유승안·서정환·유남호 등 9명의 프로감독을 배출했고,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지도자와 프런트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에 최고의 성적과 추억을 남긴 이들이지만 이에 걸맞은 이벤트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모임에서 회원들간 야구 대결을 벌여 팬들에게 향수를 선물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도 이들은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난

가을 광주일고와 군산상고 레전드 매치도 추진됐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 이번 반가움과 또 아쉬움 속에 돌아섰던 회원들은 ‘왕년호’ 이상운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모임의 활성화와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내가 욕심이 많다. 외국에서 지내다가 3년 전부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전통있고 우승도 많이 한 팀인데 모임이나 활동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서운했다”며 “모임 횟수도 늘리고 이벤트 등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 선배님들이 도와주시고 후배들도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구박물관 건립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 관계자로부터 신축구장 공사 현황과 야구박물관 건립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타이거즈 OB들은 박물관 이벤트와 야구 소장품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나주 남평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시설 될 핸드 프린팅 참여자라도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체육관서 이용대 첫 우승

빅터코리아 국제배드민턴 ... 고성현과 복식 금메달

한국 배드민턴의 대표주자 이용대(삼성전기)-고성현(김천시청)이 2012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용대-고성현은 9일 화순 이용대배드민턴전용구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대표팀 동료이자 남자복식 세계랭킹 6위인 김사랑(삼성전기)-김기정(원광대)을 2-0(21-12 21-11)으로 제압했다. 이용대와 고성현은 각각 정재성(삼성전기), 유연성(수원시청)과 호흡을 맞추다 런던올림픽 이후 새롭게 조를 이뤘고, 지난 10

월 프랑스오픈 슈퍼시리즈 이후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용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체육관에서 처음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 고성현-유연성 조에 져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도 털어냈다. 고성현은 파트너를 달리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한국 남자복식을 대표하는 조가 맞붙은 경기답게 초반에는 접전이 이어졌다. 이용대-고성현은 초반 고성현의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4-1까지 앞서나갔으나, 공격

에서 실수가 이어져 6-7로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7-8에서 치열한 랠리 끝에 이용대의 날카로운 네트플레이가 잇따라 성공하면서 9-8로 재역전했고, 김사랑-김기정의 범실로 12-8까지 달아났다. 이용대-고성현은 이후에도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공격으로는 한 점만 더 내주며 21-12로 첫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서도 이용대-고성현은 네트플레이의 우위를 앞세워 17-10까지 앞서나가 승기를 잡았다. 치열한 랠리 끝에 고성현이 후위공격을 성공하고 상대의 실수가 나오는 행운이 이어지면서 20-10까지 달아났고, 34분 만에 금메달을 결정지었다. /연합뉴스